

스웨덴 자동차 산업의 위기 및 스웨덴 경제에 대한 영향



경제위기와 국가별 노동현황

이슈분석 ⑤ - 스웨덴

손혜경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 머리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이제는 각국의 실물 위기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밀도가 상당히 낮아 내수시장이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스웨덴의 경제도 세계적인 경기 변동에 물론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의 전반적인 경제 위기의 정도나 범위가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유로화 지역의 대국인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한 가지 예외라면 스웨덴 자동차 생산업체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스웨덴 자동차 산업과 관련 산업체의 감원이 증가하면서 야기된 경기 수축은 건설업, 판매업 등에까지 영향을 미쳐 스웨덴 전국으로 감원 예고가 확산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런 배경을 출발점으로 하여 스웨덴 자동차 산업의 감원과 이 자동차 산업의 불경기에 따른 스웨덴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 및 스웨덴 국내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견해에 대해 살펴 본다.

■ 자동차 산업 및 관련 사업체의 감원 현황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최근 스웨덴을 휩쓸고 있는 감원 예고의 폭풍으로 잘 표현되고 있다. 스웨덴 노동시장 법률에 의하면 고용주가 5인 이상의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면 최소 2개월 전에 국영 직업 중개소(Arbetsförmedling)에 통보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25명 이상 100명 미만에 해당하는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 있으면 이 사실을 4개월 전에 그리고 만일 100명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라면 이 사실을 6개월 이전에 국영 직업중개소에 통보해야 한다.

초기의 감원 예고는 자동차 관련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스웨덴의 서부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여름휴가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난 6월 25일 현재 미국의 포드사가 소유하고 있는 볼보 승용차(Volvo Private Car)는 미국 및 유럽 지역의 판매량 감소로 인한 수익률 저하로 2,000명의 감원을 예고하였다. 볼보 승용차 회사는 2008년 1/4분기 중 약 9억 크로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기록하였다. 볼보 승용차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2만 4,000명을 고용하고 있고 이 중 1만 7,000명이 스웨덴에 고용되어 있다.¹⁾ 볼보 승용차 회사는 2008년 2/4분기에도 계속 실적이 저조해 약 7.2억 크로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기록하였다. 볼보는 계속되는 판매량 감소와 달러 코스의 불안정으로 조기 생산량 감축에 들어가 3/4분기 생산량을 8만 대로 제한하고 4/4분기의 생산량을 11만 대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3/4분기와 4/4분기의 생산량은 2/4분기의 생산량 11만 2,000대와 비교할 때 상당히 줄어든 수치이다.²⁾ 이렇게 줄어드는 생산량에 따라 볼보 승용차 회사는 9월 12일 추가로 900명의 감원을 예고하였다. 이는 생산공장의 3교대 그룹의 전체 인원에 해당한다. 6월의 인원 감축은 대부분 볼보 예테보리(Göteborg) 본사에서 행정직에 근무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반면 금번 인원감축은 생산직에 근무하는 인원에 직접 해당된다.³⁾ 자동차 전문가들은 볼보 승용차의 적자 발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달러 코스의 약세, 원자재가격 상승, 원유가 상승 및 판매량 감소에 있다고 본다. 특히 볼보사가 최근 몇 년 간 휘발유 소비량이 높은 대형차 생산에 치중했는데 경기가 하락하면서 대형차에 대한 수요가 격감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볼보 승용차는 앞으로 휘발유 소모가 적은 소형차 생산을 해야 위기를 타개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볼보 승용차의 최근 저조한 경영 실적은 9월 들어 볼보 승용차의 사장을 Frederik Arp에서 Stephen Odell로의 교체를 가져왔다. 볼보 승용차 역사상 최대의 위기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결국은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된 것이다. 영국인 Stephen Odell은 포드사의 유럽 지역에서 여러 가지 중책을 맡은 경험이 있는 자동차 업계의 베테랑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장이 현재 볼

1) Dagens Nyheter, 2008-09-12, "Volvo varslar ytterligare 900"

2) Göteborgs-Posten, 2008-07-24, "Ny storförlust för Volvo PV"

3) Göteborgs-Posten, 2008-09-29, "Våg av varsel i Västsverige"

보 승용차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타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어쨌든 볼보그룹이 1999년에 볼보 승용차 부문을 미국의 포드사에 매각할 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경제위기를 맞을 경우 대규모 회사를 배경으로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금년 들어 대규모의 인원감축은 이런 기대가 전 세계적 경기하락 시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잘 시사해 준다. 포드사가 스웨덴 볼보 승용차 회사의 인원감축을 단행하면서 볼보 승용차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는데 매수 대상자에는 중국 자동차 회사도 포함되어 있다.⁴⁾ 볼보 승용차의 감원은 볼보의 협력 및 하청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기업들에 소속된 약 1,000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10월과 11월에 걸쳐 감원 통보를 받았다.⁵⁾

1998년 이후 미국의 GM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브사도 최근 자동차 판매량의 감소를 보였다. 판매량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따라 감원이 필요한데 감원을 하는 대신 조업단축과 임금저하 정책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1일 2부제 생산을 1부제 생산으로 바꾸고 1,200명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월 임금을 2,000~3,000크로나만큼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하청업체에 맡긴 몇 가지 작업 부문을 사브 본사로 되돌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⁶⁾ 또한 소유주인 GM사는 판매량 저하로 지속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사브의 판매 실적이 계속 하락하면 궁극적으로 사브의 매각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된다.⁷⁾ 사브의 하청업체인 Adecco도 사브의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전체 145명의 직원 중 50명을 감원할 계획을 밝혔다.⁸⁾

소유주가 스웨덴에 남아 있는 볼보 화물차(Volvo Trucks)의 경우도 9월 말에 들어 약 610명의 감원을 예고하였으며 이어 10월 말에도 추가로 600명의 감원 예고를 발표하였다.⁹⁾ 볼보 건설장비(Volvo Construction Equipment)사는 지난 9월 30일에 500명에 해당하는 인원감축을 예고하였다. 볼보 건설장비 사업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1만 7,000명을 고용하고 있고 이 중 5,060명이 스웨덴에 고용되어 있다. 동사가 3/4분기 사업보고서 공개 바로 하루 전인 10월 23자에 850명에 해당하는

4) Göteborgs-Posten, 2008-06-25, "Våntat men våldigt allvarigt"

5) Göteborgs-Posten, 2008-09-29, "Våg av varsel i Västsverige"

6) Dagens industri, 2008-11-26, "Inga varsel men lägre lön på Saab"

7) Svenska Dagbladet, 2008-11-28, "Krisande GM sänker lönen"

8) Göteborgs-Posten, 2008-09-11, "Varsel hos underleverantörer"

9) Svenska Dagbladet, 2008-10/29, "Volvo LV varslar ytterligare 600"

직원을 추가로 감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볼보 건설장비사 전체적으로 감원예고 인원이 1,350명에 달하는데 이들 거의 모두가 스웨덴 국내에 고용된 인원일 것이라고 밝혔다.¹⁰⁾ 볼보그룹 소속으로 항공기, 보트의 모터를 주로 제작하는 볼보 펜타(Volvo Penta)의 경우도 10월 총 245명의 직원 중 90명에 대하여 감원을 통보하였다.¹¹⁾

이렇게 스웨덴 서부 자동차 산업 지대를 강타한 인원감축에 대해 스웨덴의 노동시장 장관은 우선적으로 국립 직업중개소에 감원된 인원에게 대한 재교육 명목으로 15억의 경제적인 지원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2년간 스웨덴 서부 지역의 도로와 철로 건설을 위해 약 17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가을 예산에서 약 36억 원을 자동차 관련 산업 연구 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서부 지역 경제인들은 꼭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다.¹²⁾

■ 스웨덴 자동차 산업의 불황과 기타 경제 분야에 대한 영향

스웨덴에서 자동차 산업과 비슷하게 불경기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경제 분야는 건설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경우 지방으로 전입하는 인구와 독립하는 청년수가 계속 증가해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는데 2008년 한 해 동안 건설이 시작된 주택은 고작 2,000세대에 불과하다. 이는 작년과 비교할 때 건설량이 75% 감소한 수치이다. 주택건설업계의 급정차는 단지 지난 몇 달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 많은 스웨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9월 초에 실시한 건설업자 자체 조사에 의하면 2008년 4/4분기 동안 약 1,300명의 추가고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0~11월에 불경기가 계속되자 스웨덴의 주요 대규모 주택건설업자들(NCC, JM, Skanska)이 주택건설 중단과 동시에 상당한 수의 건설노동자에 대한 인원감축 예고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거의 한 채의 주택도 건설되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건설업자들이 이렇게 어

10) Dagens Nyheter, 2008-10-24, "Volvo CE varslar ytterligare 850"

11) Göteborgs-Posten, 2008-10-16, "Volvo Penta varslar 90"

12) Göteborgs-Posten, 2008-10-08, "Ledare 9/10: Nödvändigt att agera"

려움을 겪는 배후에는 미래 주택구입자들이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건설업자 자체적으로 은행들의 엄격한 대출 정책으로 건설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¹³⁾

이런 대규모의 인원감축 예고에 따라 스웨덴의 실업률도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실업률은 3.3%를 기록하였고 11월에는 5.6%로 올라갔다. 가장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 스웨덴의 내년도 실업자수는 약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스웨덴의 실업률이 2009년도 7.8%를 기록할지 모른다는 것이며 2010년에는 이보다 높은 약 10%의 실업률을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초 스웨덴 경제위기 이후 최고의 실업률을 의미한다.

■ 자동차 산업 위기에 대한 스웨덴 국내의 반향

먼저 언급하였듯이 스웨덴의 2대 개인용 자동차 생산회사는 볼보와 사브이다. 볼보와 사브의 갑원 열풍에 대해 스웨덴의 국내 여론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 첫 번째는 스웨덴 정부가 볼보와 사브사를 직접 매입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스웨덴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양수하는 방법이고, 또 세 번째는 국민주를 발행해 볼보와 사브 승용차 회사를 매입하는 방법이다. 사실 볼보와 사브를 위기에서 구출하려면 이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동원되어야 할지 모르는 일이다.

볼보는 1999년부터 포드사 소속이고, 사브는 1998년부터 GM사 소속인데 최근 미국의 포드사와 GM사가 판매량 저하로 파산 위기에 처해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GM의 위기는 포드보다 더욱 심각해 2009년 전에 자금부족으로 파산할 위기에 있고, 포드사는 2009년 까지는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하원의 자동차 산업의 구제금융 요청에 대한 반응은 자동차 업계의 자구책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GM은 일부 공장을 폐쇄하고 브랜드를 단순화할 계획이고 전미자동차노조(UAW)에 퇴직자 건강보험으로 지급해야 할 70억 달러의 지분을 낮춰달라는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포드는 최고경영자의 연봉을 삭감하고, 크라이슬러는 다른 업체와의 합병이나 제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 자동차업체 '빅 3'이 공동으로 구제

13) Svenska Dagbladet, 2008-11-26, "Helt stopp för bostäder"

금융을 요청하고 있는 이유는 한 자동차 회사가 파산하면 그 파장이 다른 산업에도 미칠 파장이 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 하원이 '빅 3' 대한 구제금융 투입을 결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일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포드와 GM이 취할 한 가지 조치는 국외에 있는 자회사들을 처분하는 것일텐데 이럴 경우 볼보와 사브가 당연히 판매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또한 스웨덴에 위치한 자동차 회사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어 미래의 연구와 제품 개발에 위기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걱정이 증대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자체의 자동차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투입한다면 스웨덴 정부가 볼보나 사브를 또는 두 군데 모두 국유화를 목표로 자금을 투입한 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닐 지도 모른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경제적인 역할은 스웨덴이 자동차 산업의 경제적인 역할과 상당히 유사하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이나 스웨덴 모두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을 뿐 아니라 산업의 기술력, 연구, 교육 모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추정으로 만일 미국의 자동차 3사가 파산하게 되면 파산 첫 해만도 약 300만의 노동력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데 이는 세수 감소, 실업보험료 지출 증가, 관련 산업의 파산 등등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스웨덴 자동차 산업에 있어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포드와 GM사가 스웨덴 자동차 산업을 매수함과 동시에 차세대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연구시설이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위기에 따라 연구시설의 미국 집중도가 더 높아질 것을 감안할 때 스웨덴에 남아 있는 연구시설의 규모 축소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사실상 스웨덴에 몇 가지 중요한 연구 시설이 남아 있기는 하나 이렇게 남아 있는 연구시설만으로 자동차의 새로운 모델을 생산하거나 중소형 환경친화적 신세대 모터 개발에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스웨덴 정부가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교육과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이는 스웨덴의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는 역부족이다. 볼보와 사브 모두 성능이 우수한 차이기는 하나 수익성을 높이려면 생산량도 증대해야 하고 기술도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런 모든 분야를 스웨덴 같은 작은 나라가 전부 책임지고 발전시키기에는 역량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스웨덴 자동차 산업만을 볼 때 사브사보다 볼보 승용차 회사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볼보 승용차의 경우 2007년 3/4분기 결과는 -36억 크로나로서 이는 하루에 약 4,000만 크로나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4/4분기의 결과는 더욱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볼보의 국유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더욱 높지고 있다. 볼보의 국유화를 주창하는 파들은 최근 스웨덴 정

부가 위기에 처한 투자은행 Carnegie를 국유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스웨덴 경제를 장기적으로 볼 때 금융기관의 국유화보다는 자동차 회사 볼보의 국유화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중도우파 정부의 산업부 장관은 자동차 산업의 국유화에 대해 심각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녀의 의견은 볼보 상표의 뛰어난 가치도 인정하고 볼보 직원들의 우수한 능력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국가가 회사보다 판매에 더 뛰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로 잘 알 수 있다.¹⁴⁾

■ 맺음말

스웨덴의 경우 10월과 11월에 걸쳐 1990년 초 이후 최대의 감원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총 1만 9,521명의 스웨덴 노동자들이 인원 감축 예정 통보를 받았으며 또한 11월간 1만 4,400명이 추가로 인원 감축 예정 통보를 받았다. 얼마나 많은 수의 노동자가 인원 감축 예정 통보를 받는가는 노동시장 전반적인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경기에는 인원 감축 예정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해고될 위험이 높고 또한 해고된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기도 어려울 수 있다.

최근 감원 예고를 받은 인원은 바로 국영 직업중개소에 등록을 해 새로운 직업을 찾기 시작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 전반이 불경기인 관계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일이 호경기 때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스웨덴 기업의 경우 고용안정법에 따라 인원 감축할 때는 후입선출(last in-first out)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감원 처리 원칙은 스웨덴 기업들로부터 능력이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놓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런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현재의 대규모 감원은 청년 실업자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스웨덴 정부는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청년 실업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최근 상당한 규모의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직업중개소에서 운영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서부 지역의 대학에 정원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물론 청년 실업자들 모두가 대학에서 교육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소수의 청년들이 대학교육을 받아 자신의 직업능력을 향상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

14) Dagens Industri, 2008-11-25, “Handelssektor vill se svenskt Volvo PV”

게 장기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의 자동차 산업의 불경기로 인해 미국의 거대 자동차 회사 포드와 GM 소유의 볼보 승용차와 사브 승용차의 소유권 국내 이전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자동차 생산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차 모델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스웨덴 자체 자동차 시장 규모와 경제 규모로 볼때 자동차 산업의 국유화가 말보다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KLI**